

교통안전공단 '빔스'... 국가전산망 연계 안돼

(종합검사 통합전산시스템)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 혼란

정비업체 강력 반발... 운전자들도 피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종합검사 통합전산시스템인 '빔스'(VIMS)를 개발하면서 일반 지정 검사장도 공단의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정비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로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관련 검사들을 통합한 한 차체만 검사를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검사장 및 검사소는 모두 56곳(시 지정 검사장 54곳,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2곳), 이들 중 지정 검사장은 그동안 국가행정전산망과 공단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종합검사제도' 도입 이후 공단의 검사 프로그램만 적용되면서 지정 검사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사, 종합검사가 시 지정 검사장의 국가행정전산망과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가능했으나 지금은 정기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 등은 반드시 공단의 '빔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정 검사장에서 공단의 '빔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 한 대당 전산 사용료 230원을 내야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프로그램엔 '검사미필'로 기록된다. 업체에선 '검사미필'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관계자는 "도입 초기여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시 지정 검사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해 생긴 문제"라며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행정전산망과 '빔스' 프로그램 간 접속이 안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수검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공단의 종합검사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놔야 한다"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사전 교육도 없이 공단 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관계자는 "도입 초기여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시 지정 검사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해 생긴 문제"라며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심 상가·조선소·무등산...

광주·전남 화재 잇따라

상가서 1명 사망

주말과 휴일 건조주의보 속에 광주·전남지역의 도심 상가와 산 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S건물 지하 1층 와인바에서 불이 나 매니저 이모(23)씨가 숨지고, 건물 4층 만화방에 있던 최모(여·31)씨 등 5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지하 1층 370㎡를 태우고 2천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지하 1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과 함께 1층 외부로 뚫겨져 나온 것으로 미뤄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라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새벽 1시30분께 여주시 신월동 S조선소에서 불이 나 건조중이던

어선 5척(4~9.7t 규모)과 1천800㎡ 가량의 조선소 내부를 태워 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남 오후 1시10분엔 광주시 동구 계림동 R가구점 이모(여·54)씨의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중이던 가구와 건물 등을 태워 1천200여만원의 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도 잇따랐다. 5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저지서 부근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2ha를 태우고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4일 오후 4시50분엔 광주시 북구 두암동 밤실마을 뒤 무등산 자락에서 불이 나 임야 1.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입산객에 의한 담뱃불 부주의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억대 알선수수로 대출 브로커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5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양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2005~2006년 H사 등 2개 업체가 전남의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이들 업체에서 총 10억원대 알선수수를 받아 챙긴 혐의다. /연환뉴스

'성매매' 하룻밤 단속 40여명 적발

광주·전남 마사지 업소 업주 등 8명 영장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매매를 한 성매매 업주와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부터 6시간 동안 광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업주 7명과 성 구매자 12명, 성매매 여성 22명 등 41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동구 금남로 1곳, 서구 금호동과 상무지구 각각 1곳, 광산구 철만지구 2곳, 북구

용봉동과 신안동 각각 1곳이었다. 업종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6곳, 속칭 '타켓 다방' 1곳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무지구에서 여성 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41)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서구 치평동에 허브삼을 차려놓고 CCTV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한편, 10회 이상 시 1회 무료 쿠폰을 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온 것

으로 드러났다. 목포에서는 불법 채무 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여·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와 영암에 '○○허브삼'이라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우즈베키스탄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일 오후 4시49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밤실마을 앞 무등산 기슭에서 산불이 발생. 임야 1.5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헬기 5대와 소방관 및 공무원 등 250여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 1층 대낮 '도둑 조심'

남부경찰, 20대 등 검거

평일에 비어있는 아파트 1층을 골라 금품을 털어낸 2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 시내 아파

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안모(23·광주 서구 금동)씨 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구 H아파트 조모(여·28)씨의 집

에서 현금 214만원과 노트북 컴퓨터를 몰래 가져와 나오는 등 지난 달 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낮 시간대 아파트 1층 발코니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만 골라 침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천터미널서 5천원권 위폐 발견

경찰, 유통경로 수사

광주에 한 은행에서 5천원짜리 구 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

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내 K은행에서 금고속 직인 박모씨가 5천원짜리 위조지폐 한 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K은행에 돈을 입금하려고 갔는데, 지폐 계수기가 5

천원짜리 한 장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위조지폐였다"고 진술했다. 이 위조지폐엔 울곡 이씨의 숨은 그림이 없고 진해보다 색상이 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절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해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를 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K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k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novita http://www.novita.co.kr. 아직도 비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집들이선물! 호도선물! 신혼부부필수품! 근무하는 건물/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생활하는 아파트/주택. 노비타비데호남총판 비데프라자 ☎(062)515-1144 ※ 위 치: 동림 2지구 동림병원 앞